

| 위원회 동정_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정책과제 기본합의문’ 도출 노력

강금봉 전문위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전환의 실태와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의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12차 전체회의(‘19.1.11.)에서는 2019년에 논의기로 한 공유경제와 플랫폼 노동, 노사협력적 일터혁신의 주요 쟁점과 논의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백승렬 위원은 ‘모빌리티, 공유경제와 사회적 대화’란 주제로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공유경제의 출현은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적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승렬 위원은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는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리와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문호 위원은 ‘스마트공장과 노사협력적 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제하여 경쟁력 제고와 노동의 인간화가 결합한 노사참여형 일터혁신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한편, 2019년 상반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핵심 의제인 플랫폼 경제와 노동*이 1.25. 13차 전체회의에서 폭넓게 논의됐다.

* 플랫폼 노동: 공유경제, O2O 산업, 킥이코노미, P2P, 협력적 소비, 온디맨드(On-demand) 등 다양한 용



어로 표현되며 대리운전업, 배달대행업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을 뜻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카풀로 논란이 되는 모빌리티 등의 공유경제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논의되어 관심을 모았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공유경제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감소, 인터넷과 SNS 확대에 의한 낮은 거래 비용과 관리 비용으로 인해 디지털 기반의 공유경제와 P2P(Peer to Peer)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유경제의 개념적 혼란, 기존 산업과의 제도적 역차별, 특정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불법업체 단속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내는 카풀의 갈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업의 미숙한 대응과 정부의 관련 정책 부재로 인해 디지털 공유경제가 출현할 경우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에 초점을 맞췄다. 최 대표는 국내에 상륙해 있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기업의 영역에는 E-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교육, 음식/배달, 헬스케어, 광고, 레저, 게임, 분석, 공유경제, 패션, 하드웨어, SW/유틸리티, 홈서비스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성진 대표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환경 개선, 차별 완화(평가 시스템 등), 작업 통제권 강화, 근로 유연성 및 삶의 균형 제고, 일 경험, 직업기술 향상 및 축적의 장점이 있으나, 소득의 불안정성, 장시간 노동,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위협, 사회보장시스템 배제, 노동자 권리 약화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과제,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노사정의 인식 차이와 대응 과제, 노사정 공동의 정책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14차 전체회의에 합의문(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간사단회의 등 긴밀한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족취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및 위험 요인을 진단, 일자리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의 역할 제고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8.7.20. 발족